

# ‘호갱’된 한국... 일반의약품 70% 해외보다 비싸

〈어수룩한 고객〉

소비자연맹, 국내외 가격 비교조사

## 개비스콘 판매가는 150%나 높아

### 약사회 “판매가격 잘못 알고 비교”

다국적 제약회사의 일반의약품 70% 정도가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비싸게 팔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일반의약품 16개와 의약품 10개 제품의 국내외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일반의약품 중 11개 제품의 국내 판매가격이 외국보다 더 높았다고 최근 밝혔다. 해외 가격은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독일 등 5개국의 평균 판매가다.

국내의 가격 차가 가장 큰 제품은 옥시 레킷벤키저의 ‘개비스콘 더블액션 현탁액’으로, 국내 판매가가 해외보다 149.5% 높았다. 이어 화이자의 ‘에드빌정’(82.8%), 화이자의 ‘센트룸 실버정’(51.8%),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드리클로’(45.9%), 화이자의 ‘센트룸정’(35.0%), 노바티스의 ‘오트린민 멘톨 0.1% 분무제’(32.2%), 바이엘의 ‘카네스텐크립’(22.3%) 등

의 순으로 국내 판매가가 더 비쌌다.

특히 일반의약품은 판매하는 약국에 따라 최고값과 최저값의 차이가 커 베링거인겔하임의 ‘돌코락스 좌약’의 경우 최대 200% 차이가 났다. 노바티스의 ‘라미실크립’, 화이자의 ‘에드빌정’, 화이자의 ‘에드빌 리퀴겔 연질캡슐’,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잔탁’ 등 4개 제품도 100% 이상 가격 차이가 났다.

의약품의 경우 오프라인 판매처에서는 7개 품목,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3개 품목이 해외 평균가격에 비해 국내 판매가격이 비쌌다. 소비자연맹이 또 일반의약품 16개와 의약품 2개의 국내 약국별 가격을 조사했더니 동네약국을 100으로 했을 때 클리닉약국(96.0), 병원 문전약국(95.7), 대형약국(85.8) 순으로 가격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일반의약품 70% 정도가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비싸게 팔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약품 7개 제품의 판매가는 편의점 가격을 100으로 했을 때 드럭스토어(81.3), 약국(80.3), 대형마트(73.9), 온라인 쇼핑몰(62.6) 등의 순으로 가격이 비쌌다.

이와 함께 소비자연맹이 최근 1년 이내 일반의약품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300명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69.6%가 판

매처에 따라 약품 가격 차이가 없거나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93.6%가 약품 구매 시 가격을 비교하지 않고 처음 들어간 약국에서 약사가 권하는 약품을 제시 가격 그대로 구입한다고 답했다.

소비자연맹은 조사결과를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홈페이지에 올렸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국내의 가격 차는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약국에서만 일반의약품 판매를 허용해 경쟁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판매 가격을 잘못 알고 있거나 약사법을 위반해 구입가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사례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약국에 따라 최고값과 최저값의 차이가 최대 200%까지 난 돌코락스 좌약의 경우 소비자연맹이 최저 1천원에 판매된다고 발표했지만 주요 도매상의 약국 출하가격은 1700원~1800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연협뉴스



다음달 18일 오픈 예정인 이케아 광명점.

## ‘高價논란’ 이케아 제품 공정위, 실태조사 나서

### 가격비교 내년 2월께 발표

다음 달 한국에 첫 매장을 여는 ‘가구 공룡’ 이케아 제품이 ‘고가(高價)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품 가격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덕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이케아가 최근 국내에서만 고가 정책을 쓴다고 해 소비자단체를 통해 이케아의 국내·외 가구 판매가격을 비교·점검해 내년 2월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국장은 “이케아를 비롯해 국내 가구업체도 대형마트와 백화점, 가구 전문점, 온라인 등 유통채널별로 가격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측은 이번에 착수하는 가격 조사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며,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위반 내용을 적시해 처벌하는 조사와는 다르다고 부연했다.

현재로서는 공정위가 이케아의 고가 정책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지만, 실

태 조사 결과 공개를 통해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 행태와 가격 인하 효과를 유도하거나 이케아의 선제적 가격 조정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음 달 18일 한국 내 첫 매장인 광명점을 개점하는 이케아는 한국에서 일부 제품의 가격을 다른 나라보다 최대 1.6배까지 비싸게 매겼다는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그러나 지난 19일 이케아 측은 “가격은 국가별로 책정되며 가정 방문과 시장 분석, 환율, 관세 등을 검토한다”며 “현재의 가격을 인하하거나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장 국장은 이날 수수료 관련 논란이 불거지는 배달업 시장에 대해서도 소비자단체를 통한 실태조사를 시행한 뒤 내년 3월께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소비자보호 활성화 워크숍

유용 생산라인 견학 등도 진행됐다.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지원장 김종남)은 지난 25일 나주 남양유업공장에서 지역 소비자단체 회원과 소비자업무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갖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과 함께 유제품 특성 및 고객 불만 관련 교육,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 제공〉

정부의 택배업체 서비스평가 결과 (취한진, 현대로지스틱스, CJ대한통운, 로젠 등 4개사가 우수 등급인 B++를 받았다. 동부택배, KGB택배, KG엘로우캡 등 3개사는 B+등급으로 평가됐다.

국토교통부는 택배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해 한국표준협회 등을 통해 17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한 2014년 택배산업 서비스평가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일반택배 그룹에 속한 7개사 가운데 안전성(화물 사고율) 부문에서는 (취한진, 현대로지스틱스, 로젠, KGB택배)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피해 구제성에서는 현대로지스틱스가 좋은 점수를 얻었으며 서비스 성능은 (취한진)이 우수했다.

### 택배업체 안전성·피해 구제성·만족도 등 서비스 평가해보니

## 한진·현대로지스틱스·CJ대한통운·로젠 ‘우수’ 등급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는 CJ대한통운이 후한 평가를 받았다.

이들 일반택배업체는 이용자 만족도 항목 가운데 고객 대응 부문에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고객의 불만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고객 요구사항 처리 절차도 편리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성능 측면에서는 배송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정확하고 철저한 시간 관리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왔다.

이번 평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택배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우편법의 적용을 받는 우체국 택배는 제외됐다.

2014 택배산업 서비스평가는 서비스 특성과 영업 구조 등의 차이를 고려해 일반택배, 정기화물, 기업택배 등 3그룹으로 이뤄졌

다.

정기화물 4개사 가운데 천일정기화물자동차와 합동물류는 B++등급으로, 경동물류와 대신정기화물자동차는 B등급으로 평가됐다.

기업택배 6개사 중에서는 용마로지스가 A등급을 받았다. 고려택배, 한국택배업협동조합, 동진특송, 일양로지스 등은 B++등급을, 성화기업택배는 B+등급을 각각 받았다.

천일정기화물자동차와 용마로지스는 안전성, 피해 구제성, 서비스 성능, 이용자 만족도 등 세부항목에서 두루 우수했다.

국토부는 서비스 평가 결과 우수업체가 차량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연협뉴스

# 아이디어 이 피었습니다!

### ● 홍보지 및 판촉물

● 전단지

● 현수막

● 상패

● 상패

● 전단지

● 각종 인쇄물

● 현수막

● 각종 인쇄물

● 홍보지 및 판촉물

 **왕인문화기획**

Tel. (061)471-1717~1718  
Fax. (061)471-1719  
E-mail. ansqudtjs12@hanmail.net

